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의 에이즈 예방 캠페인

지난 호까지는 주로 유럽의 에이즈예방 광고들을 살펴보았다. 일반 상업광고에 못지않은 크리에이티브와 완성도 그리고 시리즈 형태로 미디어에 노출함으로써 캠페인에 힘을 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아프리카의 그것은 어떠할까?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에는 당연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지 못한 아프리카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홍보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 오히려 에이즈에 대한 홍보활동이 더욱 설사한 곳이 어긋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글 최두현 프리랜서 카미라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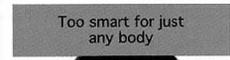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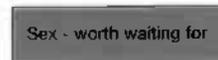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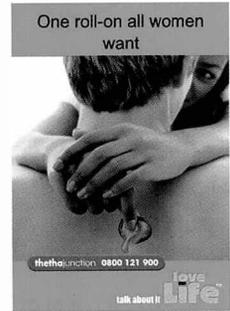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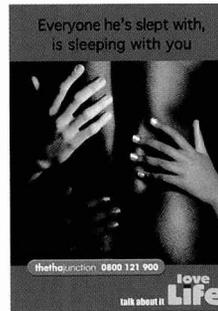
2007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이즈 환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전체 여성 중 HIV에 대하여 들어본 여성이 겨우 30%를 웃돌고 있으며, 콘돔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의 수도 50%를 겨우 넘긴다고 한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인도가 이리할진대 아프리카는 그보다 더 낮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3,950만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HIV 감염자는 전체 HIV 감염자의 약 63%를 차지한다. 특히 성인(15-49세)의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남부 아프리카의 절대왕정국가인 스와질랜드로 3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보츠와나로 24.1%였으며 다음으로 레소토 23.2%, 짐바브웨 20.1%, 나미비아 19.6%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18.8%이다.



남아프리카 세타정선의 <Love Life를 이야기하자>캠페인

먼저 남아프리카 세타정선의 <Love Life를 이야기하자>캠페인을 보자. 세타정선은 에이즈에서 가정폭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젊은이들에게 카운슬링 해주는 무료전화 핫라인 서비스이다. 2001년경에 집행된 이 캠페인은,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한 가지 역할, 만 남자와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신과 지려고 한다, 섹스-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는 것 등 올바른 성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카피와 비주얼로 이루어져 있다. 비교적 심플한 레이아웃에 별다른 기교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퍼플, 오렌지, 레드, 그린 등의 강렬한 칼라를 사용하여 주목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관된 레이아웃을 통하여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Love to be there - 미래를 사랑하자> 캠페인

<Love to be there - 미래를 사랑하자> 캠페인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함으로써, 희망의 미래를 가꾸어가자는 캠페인이다. 화목한 가정, 비행기 조종사, 박사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화형 일러스트로 정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역시 일관된 레이아웃을 유지함으로써 캠페인에 힘이 실려 있다.

